

황금송아지와 장막

복습

1. 이스라엘의 대배교 - 금송아지 - 출애굽기 32-34장 b. 모세의 첫

번째 중보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있었는데, 당신의 개요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배교”입니다. 우리는 그 장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면서 7절에서 14절까지의 요점에 도달했습니다. 개요에서 b는 “모세의 첫 번째 중보”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10절에서 제안한 심판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중재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 구절들과 그가 주장하는 세 가지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논쟁과 관련하여 그는 12절 끝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14절의 결론을 읽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끝낸 곳입니다.

우리가 “자복”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의 주요 동사 형태인 *나함은 종종 “회개하다”로 번역됩니다.* 특히 그 토론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자신이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수정하도록 재촉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효과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관련하여 성경에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7-8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 구절입니다. 나는 축복 대신 심판을 내리겠다 .” 이제 인정하건대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정말 어려운 신학적 토론에 들어갑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초점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주권이라는 신학적 문제가 아니라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토론입니다.

2. 요엘 2:12 -- 나함

계속 진행하기 전에 요엘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다른 본문을 가리키고 싶습니다. 거기에 유사한 본문이 있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 “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같은 말입니다. “[

나함]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그분이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요인입니다. 그것은 또한 중보 기도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16을 보십시오. 야고보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내 자신의 말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그 기도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선택하도록 주권적으로 그것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어떤 동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사람이었으며 회개에 응답하고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이 경우에는 모세의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씨.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오다 - 출애굽기 32:15-24

1. 돌판의 파괴

c,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감 - 출애굽기 32:15-24.” 거기에는 두 개의 소제목이 있는데, 1) “돌판의 파괴” 와 2) “아론의 절름발이 변명” 입니다. 산에서 모세가 중재자라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가 산에서 진으로 내려오실 때에 백성의 죄를 인하여 진노를 보이시나니 15절에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니 그것들은 앞면과 뒷면 양면에 새겨져 있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의 글씨로 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영으로 들어왔고 여러분은 출애굽기 32장 19절을 읽습니다. 산의.”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그 일을 보고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인용 페이지 34를 보면 Zondervan이 출판한 성경 연구생 주석에 Gispen이 쓴 단락이 있습니다.

Gispen은 “15절과 16절은 괄호로 되어 있으며 두 돌판의 큰 가치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 괄호는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중재자였던 그도 죄에 빠졌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와 함께 두 돌판을 백성들에게 나란히 제시했다면 그것은 훨씬 더 인상적이었고 하나님께 훨씬 더 초점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교 종교의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죄 많은 사람들의 일을 멸할 권한만 있는 “하나님의 일”을 범했습니다 !”

Gispin이 바로 거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지만 텍스트 자체는 모세가 한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모세의 행동은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방금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를 어겼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들 주변의 이교도들 사이에서 가졌던 예배의 유형을 결합하는 일종의 혼합주의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석판을 깨는 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두 개의 서판을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다시 그 일을 했습니다.

2. 아론의 절름발이 변명 - 출애굽기 32:21

그러나 어쨌든 산에서 모세는 중재자입니다. 진영에서 그는 백성이 한 일에 대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론에게 말하며 32장 21절에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 아론이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는 매우 절름발이 응답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우리를

앞서 갈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금 장신구를 가지고 있으면 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에게 그 금을 주었고,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때 당신은 도울 수 없지만 미소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교해 보면 Aaron이 거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4절로 돌아가서 “저가 그들의 견네 받은 것을 가져다가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연장으로 만들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 시점에서 모세에게 알린 것보다 훨씬 더 그것에 관여했습니다.

신명기 9장으로 가면 나중에 모세가 이에 대해 반성하는 동안 출애굽기 32장에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합니다. 신명기 9:20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또 당신의 죄 있는 것 곧 당신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랐나이다.” 그리하여 모세도 아론을 위하여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서도 그 노를 돌이키셨더라

모세 자신은 아론의 절름발이 변명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인 32장 25절에서 모세는 백성이 난폭해졌고 아론이 그들을

내보내게 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영 입구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매 레위 사람이 다 그에게로 모이더라

3. 백성에 대한 복수 - 출애굽기 32:25-29

그것은 당신의 개요인 “백성에 대한 복수 - 출애굽기 32:25-29” 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하는 자” 라고 도전하고 레위인들이 응답하자 모세는 그들에게 원하는 바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칼을 허리에 차라. 진영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오가며 저마다 친구와 이웃을 죽입니다.’ 레위인들이 모세의 명한 대로 하였더니 그 날에 죽은 백성이 삼천 명 가량이더라 모세가 이르되 너희[레위인]가 오늘 여호와께 구별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친자식과 형제를 대적하였음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자 레위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진영으로 나가서 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형제든, 아버지든, 어떤 친척이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삼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폭력적인 행동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맥에서 강조되는 것은 목적입니다. 특히 그 기초 규칙에서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심각성입니다. 그 규칙은 지켜져야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이런 종류의 행동을 보이는 방식으로 시작한다면 머지않아 그들이 정착해야 할 사람들처럼 향락주의, 이교주의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존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다른 모든 백성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 제사장의 왕국 - 그분 자신의 소중한 백성.

4. 레위인: 크러스(창 49:7) 축복으로 바뀌다 29절에 나오는 "축복"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9절에도 번역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레위인들이 와서 그와 함께 서라는 모세의 초대에 응함으로써 그들의 조상 야곱의 저주를 돌이킨 것 같습니다. 주님. 그들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로 돌아가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각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시므온과 레위가 나옵니다.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무기로다. 나로 그들의 회의에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분노하여 사람을 죽이고 자기 멋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나이다 그들의 분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무 사납고 그들의 분노는 너무 잔인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흠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라.” 그것은 시므온과 레위 모두에게 사실일 것입니다. 어느 쪽도 부족 영토를 가지지 않았고, 그들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시므온은 일종의 유다로 흡수되었습니다. Levi는 부족 영토를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레위 도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레위인들에게 내려진 저주였습니다.

민수기 3장 6-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 그를 돕게 하라. 그들은 성막의 일을 함으로 회막에서 그와 온 회중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이니라 그들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돌보며 성막의 일을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다할 것이니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은 그에게 온전히 바쳐질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 너희 외에 누구든지 성소에 가까이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모든 여자의 맏아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레위인도 내 것이요 처음 난 자가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애굽의 처음 난 것을 다 치던 때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나를 위하여 구별하였노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레위인들은 만아들을 대표해야 했으며 성막과 궁극적으로 성전에서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장자를 대신하여 성소 봉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사형. 추가 중보기도 - 출애굽기 32:30-33:23 1. 지워짐

개요의 하위 항목 e는 “추가 중보 - 출애굽기 32:30-33:23”입니다. 30절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리니 아마도 내가 너의 죄를 속죄할 수 있을 것이다.’” 백성들은 아마도 그들의 죄의 심각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들의 중보자, 곧 그들의 대표자로서 여호와께로 가겠다고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혹시 내가 당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32장 31절을 읽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금신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32절에서 “이제는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나는 그것이 더 잘 번역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기록하신 책에서 나를 지워

주십시오.” 모세의 그 진술은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바울의 진술과 매우 흡사합니다. 바울은 “내 형제 곧 내 혈통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 말합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영입니다. 문제는 그가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당신이 쓴 책”은 무엇입니까? 해설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거든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가리어 주소서 하옵소서.” 그 책이 산 자의 책입니까? 다시 말해, 모세가 “나를 죽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해석은 구속자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신학적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은 자의 책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안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기에 모세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워짐으로써 이 백성의 형벌을 담당하여 그들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더 이상의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인용문을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7페이지 상단을 보세요. 이것은 Gispén에서 다시 한 것입니다. 그는 “33절에서 여호와께서 32절에서 모세가 한 제안을 그가 받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32절에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면 좋으나 그렇지

아니하거든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나를 도말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이제 사람들을 인도하십시오.’” Gispen이 말했듯이, “그의 책에서 지워지는 것은 누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만 벌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지 모세를 책에서 지워버리도록 주님을 감동시키려는 그의 시도에서 모세를 잘라버렸을 뿐입니다. 모세도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멸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나중에 이 책과 주님의 선택적인 법령에 대해 더 많이 계시하는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이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제안은 34절에서 보여주듯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서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용문 36쪽에 가면 존 칼빈이 쓴 여러 문단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다 읽고 싶지는 않지만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가서 33절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를 지워 버리리라.” 여기에 칼빈의 논평이 있습니다. 위선자들은 하느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버리실 때까지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그분의 이름을 거짓으로 공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명백한 거부를 삭제라고 합니다.”

이제 앞 단락의 처음 두 줄로 돌아가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은유로 본다. 더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미치광이들” - 이것은 당신이 칼빈에게서, 그리고 칼빈보다 루터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는 종류의 언어입니다 - “그들은 이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한 우리 믿음의 주요 조항을 가능한 한 뒤집습니다. , 따라서 그들의 무지보다 적지 않은 악의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같은 의미로 '지워진' 과 '기록되지 않은' 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 버리시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시 69:28).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추론할 수 없지만, 이 구절은 단지 잠시 동안 택한 자의 수에 포함되는 버림받은 자들이 결코 교회의 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선택된 자들이 기록된 비밀 목록은 에스겔에 의해 종종 속이는 외적 고백과 대조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 고 명하신 것은 정당합니다.”

귀하의 인용문에서 페이지 하단의 34페이지로 돌아가면 Berkouwer, *Divine Election*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해하게 된 이 생명의 책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Berkouwer의 모든 내용을 읽지는 않겠지만 36페이지 맨 위의 Berkouwer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3) 큰 공포 속에서도 위안을 얻습니다. '신약에서 생명책은 속명론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영원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영원을 위해

선택되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확실성의 표현이 됩니다. 이 책에 대한 언급이 있는 모든 구절을 통틀어 이 책은 신자에게 기쁨과 확실성, 확신을 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모세는 이 제안을 합니다. 주님은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33절에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세에게 백성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안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지만 책을 지우는 것은 자신에게만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2. 모세가 인도하여 그 땅 거민을 쫓아내다 32장 34절에서 모세에게 가서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자마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사상이 소개된다. “가서 이 백성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인도하라 내 천사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벌할 때가 되면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 그는 “나의 천사가 너희보다 앞서 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다음 장인 33: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사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그 천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한 천사를 당신보다 먼저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3,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도중에 너희를 멸할까 하노라.” 32장 35절에서 그들이 전염병에 걸렸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형벌이었습니다. ” 그것은 33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3. 출애굽기 33:7 - 천사와 장막과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회의

“천사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나는 가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전개 과정을 추적하기 전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더 중재하게 되었고, 주님은 다시 마음을 누우치시고 자신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출애굽기 33:7을 보십시오. 그것은 꽤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짓고 [또는 장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쳐서 '만남의 장막'이라 부르더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물으면 진 밖에 있는 만남의 천막으로 갈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있는 만남의 천막에 대한 언급에 대해 몇

가지 논평하고 싶습니다.

비평적인 학자들은 이 구절을 많이 만들었고, 그들이 원시 회막으로 생각한 것 사이의 불일치를 봅니다. 그들에 따르면 그것은 E 근원의 일부이고 E 근원은 성막입니다. 꽤 표준적인 비평 이론에 따르면 모세 시대의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없었습니다. 물론 연대표를 그리면 E 자료는 BC 850년 또는 950년경이었습니다. P 자료 자료는 BC 450년경이 맞았습니다. 모세는 BC 1200~1400년으로 돌아갑니다. 장막이 어떻게 건축되었고 실제로 어떻게 세워졌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모든 자료는 포로기 이후의 P 문서 자료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전과 그 구조와 성소의 요소들, 제단, 진설병 상,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취하여 그것을 모세 시대로 되돌려 놓는 제사장 작가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묘사는 포로기 말기에서 초기 시대로의 투사일 뿐 실제로는 성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장 7절에 있는 것은 성막에 대한 E 설명이고 자세한 설명은 P 문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출처가 있으므로 성막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성막 자체는 정말로 비역사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성막 위에서 성막은 왜 지어졌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아직 조립되지 않았습니까. 성막이 실제로 건축되는 곳은 출애굽기 35:1과 35:9까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당시에는 성막이 없었습니다. 성막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를 살펴보면 다양한 용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막을 뜻하는 히브리어 *오헬* 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mishkan* 입니다. 그것은 "살다"라는 어근 단어 *shakan* 에서 나옵니다. *Mishakan*은 동사 형태 *shakan* 의 명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포착합니다. 거하다, 성막에.

또 다른 명칭은 이 출애굽기 33:7, *오헬 모에드* - "만남의 천막" 에 있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만남의 천막"이 *오헬 모에드가* "회중의 성막"으로 번역된 것은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에드*는 "회중" 으로 번역됩니다. *moed* 라는 단어는 단순히 "만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회막입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로 모이는 천막이 아닙니다. 즉, "회중의 성막"은 이 레이블이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제공합니다. 때때로 사용되는 다른 레이블은 *mishkan haedut* - 장막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레이블이 있는 이 7절로 돌아가려면 슬라이드 30 에 있습니다. *ohel moed* ; 그 설명은 성막과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성막 건축을 지시하는 출애굽기 27장 21절로 돌아가면 "회막 안 휘장 밖에서" 즉 증거판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등불을 여호와 앞에서 계속 켜두게 하리라." 그곳 회막은 3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오헬모에트* 이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의 이름을 *오헬 모엣이라고 하여* 그가 하나님을 만날 진영 밖에 세운 천막에 적용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 혼란을 연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성막과 관련하여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성막”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재하고 그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갔던 진영 밖에 쳤던 천막에 대한 언급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출애굽기 33장 7절을 읽게 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물으면 진 밖에 있는 만남의 천막으로 갈 것입니다. 모세가 장막으로 나갈 때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장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더니 모세가 장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어귀에 머물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백성은 구름기둥이 회막 어귀에 서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서서 각각 자기 장막 어귀에 경배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젊은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진영 밖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이 천막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장막이 아닙니다. 소스 비평에 대한 이 모든 정교한 이론은 여기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저

천막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을 인도하라 하시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당신은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이름으로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뻐하시면 당신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번역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의문사라고 생각한다. NIV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의문사라고 생각합니다. “내 존재가 당신과 함께 갈까요? 내가 당신을 쉬게 할까요?” 33장 15절에서 모세는 그에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당신에게서 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보세요, 그게 그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 시점부터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여행을 더 멀리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출애굽기 32:34과 33:2로 돌아가서 그들과 동행할 천사입니까? 그래서 33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뜻을 돌이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기뻐하고 이름으로도 너를 앞이니라 네가 구하는 그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고 , 그들이 여행을 계속할 때 그분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에프. 언약 갱신 - 출애굽기 34장 - 이단의 십계명(?) 계속해서 “언약 갱신 - 출애굽기 34장” 을 보겠습니다. 34장에서 다시 비판적 이론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34장은 때때로 그들이 “컬트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론은 십계명이 있는 출애굽기 20장에서 그것이 E 소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이 “컬트 십계명”이 있습니다. 소스 비평가들에 따르면 J 소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두 개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있고 출애굽기 34장 십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십계명은 J 자료라고 하고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E 자료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훑어 보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의 형태로 되어 있는 계명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질투라 이름하는 여호와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17절, “주물을 부어 만들지 말라.” 18절, “무교절을 지키라.” 21절, “너는 옛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쉼지니라.” 22절, “칠칠절을 지키라.” 25절, “제물의 피를 드리지 말라.” 26절, “첫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 26b절,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얻기 위해 10개를 선택하려고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는 것은 이 장의 강조점은 예식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방법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여기서 그런 종류의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종교적 준수의 특정 영역에서 죄와의 언약을 방금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예배에 대한 추가 규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 사실을 바꿉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새 판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서판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다시 기록될 때 첫 번째 서판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 즉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실, 34장의 첫 번째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주님은 “처음과 같이 돌판을 깎아 내십시오 . 내가 첫 판에 있던 말을 그 위에 쓰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 이 페리코프의 끝에서 28절에서 “그”, 즉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셨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1. 모세의 얼굴과 뿔 - 불가타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당신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추가 자료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들이 자신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NIV는 34장 29절에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33절에 보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라틴어 벌게이트는 출애굽기 33:29b절을 “그는 자기 얼굴에 뿔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였다”로 번역합니다. 그 이유는 “ 빛을 내다”를 의미하는

동사 " *qaran* " 이 있기 때문입니다 . "뿔"을 의미하는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 형태 *qeren* *o*/ 있습니다 . 원래 텍스트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Jerome은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뿔"을 의미하는 *케렌* 어근을 취하여 "모세는 그의 얼굴에 뿔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지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1960 년대에 로마에 있을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St. 피터의 사슬." 대성당의 제단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사슬로 묶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슬이 들어 있는 오래된 상자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서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제단을 바라보고, 교회 정면 옆쪽에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대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돌판을 들고 있는 모세입니다. 엄청난 조각품입니다. 엄청나게 인상적입니다. 베드로의 사슬보다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모세의 이마에 뿔이 튀어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미켈란젤로가 모세를 조각하고 그에게 뿔을 달았을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내 말은, 보통 당신은 사탄의 뿔을 생각할 것입니다 . 나는 나중에 그것을 조사했고 그것이 이 텍스트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라틴 별게이트를 읽고 있었는데, "그는 산에서 내려왔는데 자기 얼굴에 뿔이 난 줄도 몰랐다!" 그래서 그는 뿔이 있는 모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로마를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 그것은 놀라운 조각품입니다 - 왜 모세가 뿔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일부

그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오래된 그림은 뿔이 있는 모세를 묘사합니다.

5. 성막이 건축됨 - 출애굽기 35-39장

계속해서 5장 “성막이 세워졌다” 로 가 봅시다. 이제 언약이 다시 세워졌으므로 모세는 출애굽기 25-31장에서 그에게 주어진 지시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구조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25-31장에서 모세는 성막 건축 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35-39장에서 그는 실제로 성막 건축에 대해 시작합니다. 따라서 건축 지침이 있고 실제 건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시퀀스의 중단으로 황금 송아지 사건인 32-34장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주님의 임재를 확보하기 위해 겔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이 겔으로 보기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보였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그의 임재를 제공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의도된 방법과 대조됩니다.

당신은 성막 건축에 관한 지시 사항을 기억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명령으로 31장의 끝으로 돌아가면 그 지시 사항은 끝났습니다.

31:12에서 나는 그것에 대해 몇 가지 논평을 했다. “옛새 동안 일하라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 속할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런 다음 32장에서 34장까지의 막간을 얻습니다. 35장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안식일 인식, 그는 돌아가서 안식일을 다시 강조합니다. “

모세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6일 동안 일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거룩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다시 강조한다. 우리는 성막 건축을 주님이 시내 산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시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분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막은 실제로 일종의 움직일 수 있는 시내산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을 떠날 때 성막이 건축된 후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임재는 항상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막 건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1. 성막 해석의 역사 더 나아가기 전에, 나는 이 장들을 살펴보거나 그것에 대해 논평하지 않을 것이지만, 성막 해석의 역사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성막은 많은 추측과 무책임한 해석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해석의 역사에서 성막에 대한 매우 다양한 상징적 의미가 제안되었습니다. 유대인 해설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와 같은 일부 유대인 해석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는 해석 방법에 있어서 매우 우화적이었고 성막이 우주의 패턴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바깥뜰은 땅, 성소-하늘, 진설병 열두 덩이가 있는 상은 12달로 된 해를 나타내고, 가지가 일곱 개인 금촛대는 일곱 행성을 나타냅니다. 7개 이상의 행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색, 청색, 진홍색 아마실은 요소들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막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지성소는 사람의 영이며 중심입니다. 성소는 영혼이며 거기에는 일곱 등불 곧 각종 이해와 분별과 지식과 관념이 있는 촛대가 있습니다. Outer Court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기관이므로 모든 사람이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매우 사변적인 해석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런 종류의 것을 상징하는 성막 전체를 보는 것 이상으로 모든 색상, 재료, 금속 유형을 취하고 색상에서 의미를 찾는 다른 많은 설명자가 있습니다. 금속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비. 성막의 상징주의 해석에 관한 Faibairn의 조언 38쪽과 39쪽의 인용문을 보면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읽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막과 재료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패트릭 페어베언의 *성경의 유형론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는 “사용된 다른 기사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여러 종류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하다는 것보다 더 높은 이유를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가장 귀한 금속, 아마포 제조의 가장 좋은 재료, 수놓은 솜씨, 가장 풍부하고 가장 화려한 색상, 가장 아름답고 값 비싼

보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의 탁월한 영광과 장엄함, 그리고 그분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도록 허락된 자들이 누리는 독특한 영예에 대한 개념을 외부 장치를 통해 이끌어 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성막 건축에 사용된 재료와 성막 뜰에서 봉사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의 공복이 풍부하고 값비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영광(또는 장식)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목적을 위해 그것들은 가장 찬란한 색인 청색, 자색, 진홍색으로 바늘로 수놓은 애굽의 고운 아마포로 구성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의복과 관련하여 효과를 내기 위해 이와 같이 수단을 취했다면 성막 자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완전한 형태의 거처인 성전에 대해 읽게 되는데, 그것은 '매우 웅장하여 온 나라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솔로몬이 사용한 다른 것들 중에서 '그 집은 아름답게 하기 위해 보석으로 장식되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재료는 성막 건축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성막이 세워진 특별한 거처를 주신 존재의 위대함과 영광에 대한 적절한 인상을 전달하는 데 가장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그들이 고용될 충분한 이유를 얻었고,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우리는 불확실하고 추측의 영역으로 방황할 뿐입니다.”

즉, Fairbairn이 제안하는 것은 이 장소가 만들어지는 것의 웅장함과 영광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재료와 색상이 선택되었다는 사실 외에 다른 의미를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다음 문단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의 어떤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서 그렇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용된 경우나 이것이 행해진 방식은 우리의 의견으로는 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금속에 관한 한 성경에는 값비싸고 일상적인 용도에서 암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금속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놋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바깥 뜰의 비품과 기구에 널리 사용되는 금속이어야 했고, 성소 자체에서 은과 금은 의심할 여지없이 신성한 탁월함과 영광을 발견할수록 그의 임재의 비밀에 더 많이 들어가 그의 아름다움을 볼 준비가 됩니다.

순결의 개념을 표현하는 흰색이나 죄의식을 표현하는 빨간색과 같이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가 발견하는 특정 색상의 상징적 사용; 그러나 그렇게 사용될 때는 특정 색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며 그러한 상징이 분명히 필요한 경우와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막의 색깔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색상은 대부분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골라내고 각각에 독특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다면, 상징된 개념이 하나님과 관련되거나 그분의 숭배자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바로 그 탐구는 필연적으로 끝없는 미묘함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전달되어야 할 우리가 본 하나의 직접적이고 만져볼 수 있는 인상을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자의성의 예로서, Bahr는 붉은 색을 자주색 음영으로, 위엄과 주홍 색으로 하나님의 생명을주는 속성을 의미하게 만듭니다. 반면 노이만은 빛과 색의 속성을 새롭게 조사한 후, 보라색은 은총의 자비에, 진홍색은 심판의 질투에 기울어지는 것처럼 빨간색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봅니다. Bahr의 경우 파란색은 하늘 위엄을 상징하며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노이만과 함께 그것은 바다의 깊이를 가리키며,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상징하며, 창조주의 안정성에 언약의 기초를 놓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자의적인 의미들은 원로 유형학자들의 변덕에 필적할 만큼 그들이 자라난 땅의 기발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색상이 서로 엮여 있는 자수 작품처럼 각각 고유한 위치에 따로 서 있지 않으므로 대체사장의 복장에 있는 유사한 예술 작품, 즉 장식용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상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이라고 말하고 그대로 두십시오. 즉, 성막의 색상과 재료에 대해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찾지 마십시오.”

아마 좋은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성막과 관련하여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는 영역에서 엄청난 양의 남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히브리서가 이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성막에 유형론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정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다가올 더 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씨. 성막의 유형학적 의미에 관한 Vannoy와 Vos: 상징과 유형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당신이 성막에 합당한 유형론적 의미가 첨부될 수 있다고 말하면, 질문은 곧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가 됩니다. 나는 Gerhardus Vos가 성막의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예술가의 렌더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구절에 대해 좋은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슬라이드 31의 다이어그램입니다.

유형학적 중요성까지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인용 페이지 40을 보십시오. 그의 *성경신학* 에서 Vos는 유형학에 대해 논의하고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하여 그것을 논의하고 성막이나 구약의 다른 어떤 측면에서 유형론적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성서, 당신은 무언가의 상징주의와 그것의 유형론적 의미 사이의 연결을 확립해야 합니다.

정의에서 40페이지를 보면 기호가 무엇입니까? Vos에 따르면 귀하의 인용문 40페이지 맨 위, “상징은 종교적 의미에서 어떤 사실이나 원칙 또는 영적인 본성의 관계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심오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묘사하는 것은 현재의 존재와 현재의 적용입니다. 그들은 상징이 작동하는 시점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본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형태의 영적 본질에 대한 어떤 사실이나 진실. 그것이 묘사하는 것들은 현재 존재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유형에 대해 그는 다음 인용 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형적인 것은 장래성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현실이 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 따라서 유형은 장래성입니다. 상징은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슬라이드 32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서 그가 연결을 설정합니다. 그는 “유형은 첫 번째 기호가 아닌 독립적으로 유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후에야 우리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정당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0쪽, 세 번째 문단으로 돌아가십시오. Vos는 “이해해야 할 주요 문제는 어떻게 동일한 묘사 체계가 동시에 상징적이고 전형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묘사된 것들이 각각의 경우에 서로 다르거나 다양하고 서로 관련이 없었다면 분명히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어떤 것이 어떤 현실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라면, 바로 이 사실로 인해 전혀 다른 성격의 또 다른 미래 현실을 가리키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상징된 것과 예표된 것이 서로 다른 집합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같은 것들이지만, 단지 구속의 발전의 낮은 단계에서 먼저 온 다음 나중에 더 높은 단계에서 다시 온다는 점에서만 다릅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사실이나 진리의 판과 관련하여 상징적인 것은 동일한 사실이나 진리의 나중 최종판의 전형, 예언이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유형은 처음에 기호가 되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유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유형학의 집으로 가는 관문은 상징주의 집의 가장 먼 끝에 있다.”

그래서 당신은 현재 현실의 어떤 영적 진실을 묘사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사의 긴 행간에서 후기판의 전형이 됩니다. 그것은 동일한 진리의 후기판입니다. 다른 진리가 아니라 동일한 진리가 구속사의 더 높은 단계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발견한 후에야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전자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유형과 반대 유형을 함께 묶는 유대는 구속의 진행 과정에서 활력 있는 연속성의 유대여야 합니다.”

40페이지의 다음 단락에 주목하십시오. ~이다 그만큼 근본적인

규칙 에게 BE 관찰 ~에 확인 무엇 강요 ~에 그만큼 오래된 성서 ~이다
전형적인, 그리고 여기서 그만큼 것들 동 에게 그들을 ~처럼 원형 이루어져
있다. 오직 ~ 후에 데 발견 무엇 ㅏ 물건 상징하다, ~할 수 있다 우리
합법적으로 진행하다 에게 놓다 그만큼 질문 무엇 그것 대표하다, ~을 위한
그만큼 후자 ~할 수 있다 절대 BE 어떤 일 또 다른 ~보다 그만큼 이전의 해제
에게 ㅏ 더 높은 비행기. 그만큼 노예 저것 보유 유형 그리고 예표 함께 ~
해야 하다 BE ㅏ 노예 ~의 필수적인 연속성 ~에 그만큼 진전 ~의 구원. 어디
이것 ~이다 무시, 그리고 ~에 그만큼 장소 ~의 이것 노예 ~이다 놓다 우연한
유사점, 무효의 ~의 내재적 영적인 중요성, 모두 종류 ~의 부조리 ~ 할
것이다 결과, 그런 ~처럼 ~ 해야 하다 가져오다 그만큼 전체 주제 ~의 유형학
~ 안으로 나쁜 평판. 예 ~의 이것 이다: 그만큼 주홍 코드 ~의 라합 예시
그만큼 피 ~의 그리스도; 그만큼 네 문둥병자 ~에 사마리아, 그만큼 네
전도자.

“그만큼 장막 여유 ㅏ 분명한 사례 ~의 그만큼 공존 ~의 그만큼 상징적
그리고 그만큼 전형적인 ~에 하나 ~의 그만큼 원칙 기관 ~의 그만큼 오래된
성서 종교. 그것 구체화하다 그만큼 두드러지게 종교의 아이디어 ~의 그만큼
주거 ~의 하나님 ~와 함께 그의 사람들.”

즉, 여기서 성막을 상징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구속의 진행 과정에서 어디에서 다시 나타납니까? 그것이 그가 그것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성막의 전형적인 의미는 상징적 의미에 밀접하게 의존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다. 성막과 그리스도, 교회, 개별 그리스도인과 새 예루살렘 성막이 공동체를 가르치기 위해 제공한 이러한 종교적 원칙과 현실이 최종 단계에 도달한 후속 구속사에서 다시 나타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첫째, 우리는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합니다. 전도자는 요한복음 1:14에서 이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러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2:19-22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적들의 태도로 인해 파괴하려고 했던 구약의 성전을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부활을 통해 사흘 만에 다시 건축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해 회복된 구약 성소 사이의 연속성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나타납니다. 같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며 거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락에서 “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사실인 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그것의

성막도 예표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 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개인 그리스도인에게서 그것을 보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막이 앞을 향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진리를 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진리를 보는 유형론적 의미는 구속사의 진행 과정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진리임에 틀림없다. 상징화되는 것은 모형화되는 것과 동일한 진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 교회, 개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에서 재현되는 기호에서 동일한 진리를 찾는 Vos의 연결은 무책임한 유형 학적 해석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진리를 잃으면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합법적인 해석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유형학적 해석으로 해석의 남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더 영구적이고 더 큰 규모에서만 성막과 같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모두 성막으로 상징되고 성전으로 상징되는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전과 성막은 같은 진리, 즉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다른 표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임혜연 작사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Katie Ells의 최종 편집

Ted Hildebrandt가 다시 설명함